

야외놀이터



야영각의 뒤쪽으로 돌아가면 해수욕장으로 들어서는 솔숲가운데에 야외놀이터가 꾸려져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야영생들도 조선의 민속놀이에 흠뻑 빠져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도 좋지만 돌아가는 줄에 맞춰 짱충짱충 뛰어오르는 줄넘기는 오죽 재미있는가.
 와- 높은 함성소리에 다가가보니 무릎싸움이 한창이다.
 두 소년이 각기 한쪽무릎을 단단히 부여잡고 마주섰는데 초롱초롱한 눈에는 제법 야심찬 기상이 어린다.
 이쪽저쪽 밀고 밀리우고 승부가 나지 않을것 같더니 자그마한 체구의 소년이 옆으로 돌아 슬쩍 무릎으로 올려친다.
 아이쿠, 영딩방아를 찢는 덩지큰 소년을 보며 와하하- 티지는 웃음소리.
 (작아도 고무알이라더니...)
 그리고는 《싸움》끝에 정이 들어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함을 피우는 아이들이다.

